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3개월간 산문 밖 출입을 삼간 채 수행정진에 몰두하는 동안거가 1일 송광사·백양사 등 각 사찰별로 일제히 시작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안거(安居)=불교에서 스님들이 하절기(음력 4월 보름~7월 보름)와 동절기(음력 10월 보름~정월 보름) 3개월 동안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것. 북방 불교에서만 실시하는 독특한 수행법 가운데 하나로 국내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스님들의 단체 수행 문화다. 부처가 벌레를 죽이지 못하도록 돌아다니는 것을 금한데서 유래했다.

순천 송광사·장성 백양사 등 전국 100여개 선원서 화두 참선 동안거 돌입

외부출입을 삼간 채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불교계의 동안거(冬安居)가 1일 각 사찰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순천 송광사, 장성 백양사 총림선원 등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2천 300여 명의 스님이 참가한 가운데 음력 10월 보름인 이날부터 석 달 동안 동안거가 진행된다. 동안거 때는 전국의 수좌스님(참선수행에 전념하는 스님)이 방부(안거에 참가하겠다는 신청절차)를 들어 수행에 매진하고, 일반 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이 기간에 함께 정진하게 된다. 안거 기간 동안 수행자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 취침하기 전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수행 정진을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일도 금지된다. 동안거 시작에 맞춰 송광사, 백양사 등 각 사찰별로 방장 스님들이 동안거에 참가한 수행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결제 법어를 내렸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지난달 29일 동안거 결제법어로 “중국 무착(無著) 스님은 오대산에서 문수 보살 친견 기도 중 죽을 죽다, 죽이 넘쳐 신투경을 여는 순간 죽 거름마다 문수 보살 얼굴이 나타나 크게 깨치셨다”며 “무착은 무착일 뿐이요 문수는 문수일 따름,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는 오도송을 말했다. 스님은 “결제대중은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공부(工夫)해서 시주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응맹정진을 당부했다. 또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무죄 속에 넣어 삶이 살점이 없어지고 홀로 벗어나 의지함이 없어야 비로소 일호(一毫)만큼 점두(點頭)를 얻게 될 것”이라며 결제대중의 수행 정진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한 마디 말과 반구 절의 글 위에서 깨달아 걸리는 것 없이 자유자재하면, 푸른 것이 오면 푸른 것이 비추고 붉은 것이 오면

붉은 것이 비추게 되어 옳지 않음이 없다”며 수좌스님들을 격려했다. 한편 조계종 중정 법전 큰스님은 지난달 26일 한 수도승이 건봉선사와 운문선사를 찾아 나눈 대화에 예로 올래 결제 법어를 내리면서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를 화두 삼아 열심히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일제히 동안거에 드는 스님들은 결제에 앞서 지난달 30일 저녁 모임을 갖고 안거 기간 각자의 소임을 임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했으며, 1일 방장스님 등 큰스님을 모시고 결제법어를 청한 뒤 3개월간 참선정진에 들어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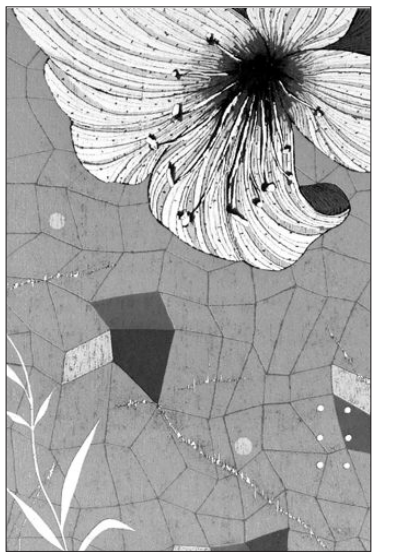
내일의 아시아 미술 광주에

시립미술관·에보꼬, 국제현대미술 아트비전

18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작가 109명 참여

광주 작가를 비롯해 아시아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현대미술의 흐름과 경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예술적 화두와 의제를 제시하는 대규모 국제전시회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과 사단법인 에보꼬는 '2009 제2회 국제현대미술광주 아트비전'(조직위원장 최석현)을 1일부터 18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2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아시아 패닉'(ASIA PANIC)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이번 전시는 '아시아 패닉'(전시장 1관)을 비롯해 '안티 인터내셔널'(전시장 2-1관), '한국현대미술총년전'(전시장 2-2관) 등 세 섹션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대회 취지에 맞춰 국내는 물론 외국 작가들을 선별해 힘있고 실험성이 강한 미술의 발전지인 아시아성과 세계화나 국제적이라는 것보다는 '안티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 진지한 모습과 목소리를 표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07년 제1회 현대미술광주 아트비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의 합동전 틀을 벗어나 현대미술을 새겨놓을 보여주기를 위해 역량있고 실력있는 작가들을 선별해 참여하게 했다. 일본작가 쇼코 토다를 비롯해 중국 의 슈 하오, 미국의 미첼 안도니 사이먼 등 외국작가와 이매리, 강은, 안진성 등 국내작가 109명이 참여해 회화는 물론 설치와 영상, 조각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험성과 예술성,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을 대거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대회 취지에 맞춰 국내는 물론 외국 작가들을 선별해 힘있고 실험성이 강한 미술의 발전지인 아시아성과 세계화나 국제적이라는 것보다는 '안티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안진성 작 '비밀정원'

전시총감독인 장석원 교수(전남대)는 "이번 아트비전은 빠른 속도와 광대한 에너지로 가장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는 아시아의 변화상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젊은 작가들의 신선한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08-422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리랑으로 풀어낸 '슬픈 사랑'

서영무용단 '아리'

내일 밤 광주문예회관

"민요 '아리랑'으로 풀어낸 슬픈 사랑이야기." 서영무용단이 한국 창작 무용 '아리'(안무 서영)를 2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아리'는 각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아리랑'의 상징성에 '진도 아리랑'의 기원 설화를 접목시킨 작품이다. '원

없는 흐름', '격변', '동심결' 등 6장으로 구성된 '아리'의 주인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아픈 사랑을 이어가는 아리(소영공자)와 사리(설남자)다. 안무가가 중점을 둔 부분은 남성 무용수 11명의 다이나믹한 춤사위를 볼 수 있는 전경선과 감정이 극대화되는 여주인공의 죽음을 묘사한 5장 '끝없는 기다림'이다. 또 간결하면서도 포인트 있는 세트를 활용한 무대구성과 조명을 활용한 감정 표현 등에도 신경을 썼다. 문의 062-512-6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마음을 주었습니다

천주교회 '사제의 해' 기념 창작극 광주·전남 순회공연



극단 '지구인' 연출가 지성구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우기홍, 김은희, 하현주, 김효남, 황성훈, 권윤규 등이 출연한다. 문의 02-2253-919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계 천주교회가 2009, 2010년을 '사제의 해'로 선포한 것을 기념해 제작한 가톨릭 창작연극 '마음을 주었습니다'(사진)가 12월 한 달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잇따라 무대에 올린다. 사도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의 탄생 15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이번 순회공연은 동성당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10일 오후 7시 30분 동림동성당에서, 13일 오후 2시 30분에는 장흥문예회관에서 공연하

며 마지막으로 17일 오후 7시 30분 주월동성당에서도 무대가 마련된다. 평화방송과 가톨릭 문화기획 IMD 등이 제작한 '마음을 주었습니다'는 남해안의 작은 외딴섬을 무대로 교도소 수감자와 이들의 교화 프로그램을 맡은 신학생 사이에 벌어지는 해프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극. 죄를 바라보는 마음,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오해와 충돌, 사제의 의무에 대한 갈등과 변민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다.

서담 '가야금 소리路' 전년을 깨우다

순천문예회관 연주회 성황



서담(전남도립대 실용음악과 교수)의 '가야금 소리(路)'가 지난달 29일 오후5시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성황리에 마쳤다.(사진)

전통공연예술원 'pan'이 기획한 이번 공연에서 서 교수는 조선시대 궁중 연례악의 하나인 정악 '천년만세'와 박력 있는 산조를 여성스럽게 재구성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등 전통음악을 선보였다. 이밖에 황병기 곡 '하마단'과 25현가야금으로 표현한 박경훈 곡 '가을의 일기', 성가곡 '내 주를 가까이', '푸른 옷소매' 등 시민들에게 맑고 청아한 가야금 선율을 선사했다. 전남대 국악과 출신인 서씨는 전남도문화재 전문위원, 빛고을무용가야금연주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동부취재본부=히테미기자 hajia@

영 / 학 / 안 / 내

영화에 빠지다

메가박스

1관	닌자어세신 (18세)	최고급판
2관	백야행 (18세)/솔로이스트 (12세)	
3관	용길동의 후예 (12세)/2012 (12세)	
4관	청담보살 (15세)	
5관	2012 (12세)	
6관	용길동의 후예 (12세)	
7관	백야행 (18세)	
8관	크리스마스캐들 (전제)	
9관	2012 (12세)	

• 어프루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런던역사거리 ☎메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백야행 (18세)
2관	백야행 (18세) / 바람 (18세)
3관	용길동의 후예 (12세)
4관	용길동의 후예 (12세)
5관	청담보살 (15세)
6관	크리스마스캐들 (전제)
7관	2012 (12세)
8관	2012 (12세)
9관	닌자어세신 (18세)
10관	2012 (12세)

힐튼시탈 영화시탈 • 메: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매남점 (무역회관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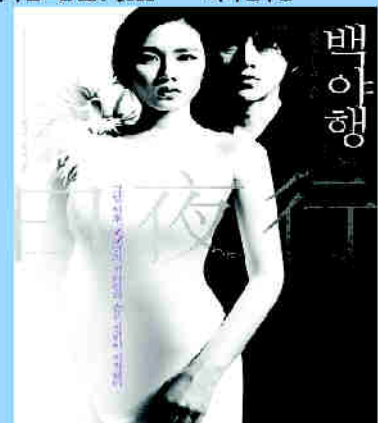


1588-7941 상무점연결 병행-(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백야행 (18세)
2관	용길동의 후예 (12세)
3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제)
4관	집행자 (18세) / 솔로이스트 (12세)
5관	용길동의 후예 (12세)
6관	청담보살 (15세)
7관	닌자어세신 (18세)
8관	닌자어세신 (18세)
9관	2012 (12세)
10관	2012 (12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용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8미 수원점 269-5757 • 8미 불린점 262-0925 • 8미 갈포점 251-5060 • 8미 대구점



고려시탈 고객센터 • www.hamichema.co.kr / 1588-9120 전미무선 하미스포박스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2012 (12세)
2관	2012 (12세)
3관	용길동의 후예 (12세)
4관	청담보살 (15세)
5관	솔로이스트 (12세)
6관	트와일라잇 (12세)
7관	백야행 (18세)
8관	닌자어세신 (18세)

• 매달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용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극장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시탈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2012 (12세)
2관	2012 (12세)
3관	용길동의 후예 (12세)
4관	청담보살 (15세)
5관	솔로이스트 (12세)
6관	트와일라잇 (12세)
7관	백야행 (18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우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최초문기 • www.primuschema.com / www.jellicinema.co.kr • 총상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